

## 포트 소개

포트는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그 외 유럽의 다른 유서 깊은 '아펠라시옹'들과 함께 훌륭한 클래식 와인 중 하나다.

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포도 재배 지역 중 하나인 포르투갈 북부 도우로 밸리에서 생산된다.

오래되고 유명한 포트 하우스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포트를 언급하면 영국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트는 높은 인지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즐기고 있다.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셀러나 와인 리스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기도 하다. 최고 수준의 포트 생산자들이 만든 와인은 다른 최고급 와인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도우로 밸리에서 와인이 생산된 것은 거의 2,000년 전부터다. 그러나 포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와인이 생산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와의 분쟁으로 보르도를 비롯해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와인을 수입하던 것을 중단하고 포르투갈로 눈을 돌렸다.

1756년 세계 최초로 포트 포도원들에 법적으로 원산지 지명 표기에 제한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AOC라고 할 수 있다. 포트 포도원의 등급 분류는 이해해, 그러니까 보르도의 1855 등급분류보다 거의 100년 먼저 이루어졌다.

포트는 와인 양조 과정에서 소량의 포도 스피리츠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주정 강화 와인이다. 치즈나 초콜릿과 함께 보통 식사의 막바지에 디저트 와인이나 '애프터 디너' 음료로서 대접한다. 화이트 포트 같은 일부 스타일은 식전주로도 마실 수 있다.

포트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각각은 그것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차이점은 주로 캐스크, 배트 통, 병 등 와인을 숙성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부터 나온다.

다른 일부 국가들에서도 포트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포트가 아니다. 도우로 밸리에서 그곳만의 특별한 조건으로 생산된 와인만이 진짜 포트로서 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크로프트, 다우, 폰세카, 그레이엄, 테일러, 와레 등 유명하고 존경받는 포트 하우스들은 역사가 길어서 그 중에는 3세기 이상 된 곳들도 있다. 다른 와인 생산 지역의 유명 생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은 수 세대에 걸쳐 기술과 전통이 물려 내려온, 가문 소유 기업이다.

